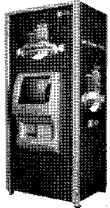


일본 NCR, DVD 자동렌탈기 판매 개시

24시간의 무인 DVD 렌탈이 가능



일본 NCR(주)은 DVD 자동렌탈기 솔루션 「NCR SelfServ Entertainment(셀프 서브·엔터테인먼트)」의 판매를 개시했다.

자동판매기와 같이 유저들이 좋아하는 시간에 CD, DVD, 게임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렌탈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이다. 1대에 렌탈 상품을 최대 948매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 판매에도 대응한다. 유저는 PC나 휴대 전화를 통해 재고상황을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다. 또 렌탈 상품은 동일 시스템 내의 단말기라면 어디에서라도 반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사에서는 이 제품을 편의점이나 쇼핑몰, 공항,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 장소로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미 NCR에서는 비디오 렌탈 업계 최대기업의 블록버스터와 제휴하고 있어, 2009년에 2,500대 이상의 도입을 완료 예정이다. 2010년 중간까지는 10,000대의 전개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캡슐 ‘귤’ 판매



▲자판기로부터 나온 캡슐에서 귤을 꺼내는 아이들

전국 귤지의 귤생산지 에히메현 야와타하마 시에서 ‘캡슐 귤’이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이벤트 상품으로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담으로 “수도의 수도꼭지를 비틀면 귤 주스가 나온다”라고까지 말해지는 이색 상품이다.

시가 화제성을 노려 도입했다. 제품이 기획된 것은 시와 8서지구 청년 농업자 연락 협의회가 작년 7월에 열린 의견교환 회의에서이다. 동협회의 멤버가 “캡슐에 귤을 넣어 판매하면 어떨까?”라

고 제안한게 계기가 되었다. 대상층은 캡슐자판기 주 이용층인 아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30대 후반까지의 젊은 세대층. 시 농림과가 귤의 소비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확대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약 3만엔의 비용을 투자해 자판기를 구입했다.

자판기는 100엔을 입금시키고 레버를 돌리면 귤 1개가 들어간 캡슐이 나오는 구조이다. 귤 주스나 ‘잡어하늘등’의 특산품 지급 복권이 들어있는 캡슐이 나오기도 한다.

아이와 함께 많은 보호자들도 귤을 구입하기 좋다. 시는 아이에게 보호자들이 끌려와 귤의 소비가 촉진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잔 80엔의 자판기 카페

빌딩 공실활용,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호평 받아



‘한잔 80엔으로, 느긋하게 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오사카시의 상업 빌딩에서 싼 가격의 자동판매기 코너와 일체화한 무인

카페가 인기이다. 불황하의 절약 지향 때문인지 샐러리맨이나 오피스 레이디들로 만원이 되는 점포도 있다. 빌딩 공실의 효과적 활용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오사카시 기타구의 오사카 역전 빌딩의 지하 음식점거리에 업계의 개척 「웨크스」(동시 타이쇼구)이 전개하는 무인 카페 ‘드링크 스테이션’이 있다. 방에는 카운터와 20석 가까이 의자, 80~100엔의 음료자판기와 빵이나 과자자판기가 3대 줄서있고, 방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동사에 의하면 종업원이 정기적으로 상품 보충이나 청소를 위해 순회해 청결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1일에 약 300명이 내점, 월평균 약 150만엔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귀가 도중의 한 여성 회사원(31)은 “담배를 피우지만, 밖에 나오거나 찻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귀찮다. 싸고 편리해서 이곳으로 매일 온다”라고 말했다. 독서 중인 60대 남성 회사원은 “지하 상가는 술집만 있다. 반면 이곳은 앉아 쉴 수 있는 것이 좋고, 약속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재해시 협력 협정 : 히코네시, 코카·콜라와 구원형 자판기 설치

히코네시는 코카·콜라 웨스트(후쿠오카시)와 재해시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내용은 재해 발생 시 동사가 시에 음료를 적정가격으로 제공하는 것과 재해 구원형 자판기내 음료의 무상 제공(시 요청 음료 보충은 시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속히 재해시의 음료 제공과 정보 발신을 조합한 재해 구원형 자동판매기 시 시청 앞에 설치되어 테이프 컷팅 행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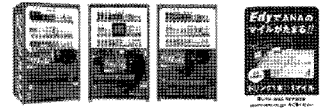
자판기는 음료 약 500병을 내장할 수 있어 재해 시에는 시 재해 대책 본부의 판단으로 이재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자판기를 뒤따른 메시지 보드에는 PC로부터 재해 정보 등이 제공된다. 배터리를 내장해 정전시 도 사용할 수 있다.

동시는 사단법인현 LP가스 협회 히코네, 이누카미, 아이치의 3지부 모두 재해시의 가스 설비 복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는 슈퍼 「헤이와당」(본부·히코네시)이나 히코네 상가 연맹, 히코네 수도 협동조합등과 도 재해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자동판매기로, ANA 마일리지 가 모인다!!

전 일본 공수, 일본 코카·콜라, 빗트와렛트의 3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음료를 전자화폐 「Edy(에디)」로 구입하면, 음료 1개에 대해 1 마일이 모이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2009년 4월부터 오키나와 현, 10월부터 홋카이



도에서 한정 전개를 실시한바 있다. 이곳에서 호평을 받아 전국 확대를 단행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Edy」대응의 코카·콜라의 자동 판매기(약 70,000대 / 2010년 1월 시점). ANA 마일리지 클럽 회원이 음료를 「Edy」로 구입하면 음료 1 개에 대해 1 마일이 모이게 된다. 개시일은 1월 1일로, 오전 0시 구입보다 마일 적산이 개시된다.

자판기로 개인 메세지 전한다

이네쵸주 가게 마을 공원에서 모집



▲ 주 가게 마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 게시판 부착 자판기 음료의 상부에 메세지가 표시된다. (이네쵸 카메라)

이네쵸는 동 마을 카메라의 주 가게 마을 공원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전광게시판에 표시하는 메세지를 모집하고 있다.

자동판매기는 작년 4월에 설치되어 뉴스나 지역의 정

보만을 표시해 왔지만, 보다 지역 주민에게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개인 메세지 모집을 시작했다.

내용은 생일이나 진학 등을 축하하는 메세지나 이벤트의 개최 정보, 격려문 등 자유로운 내용이다. 게재 희망일의 7일전까지 신청해, 1일~1주간 정도 표시한다.

전자 메일에 메세지 내용과 게재 희망일을 명기해 info@town.ine.kyoto.jp에 송신하면 된다.

보르네오 지원 자동판매기 : 동물이나 자연 보호, 매상금의 일부에서 현지를 지원

약 30대, 전국에 걸쳐 도입

말레이시아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는 NPO 법인 「보르네오 보전 트러스트 재팬(BCTJ)」이라고 청량

음료수 메이커 「키린 비버릿지」(치요다구)이 공동 제작한 ‘보르네오 지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전국에 퍼지고 있다. 매상의 일부가 현지에서의 보전 활동에 사용되는 구조로, 설치 취지에 찬동한 기업들이 차례차례로 설치를 받아 들여 이달 말에는 전국에서 약 30대까지 설치된다고 한다.

자판기는 작년 9월의 「아사히산 동물원」(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종합건설회사 「타이세이 건설」(신주쿠구), 히로시마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슈퍼 「프레스타」가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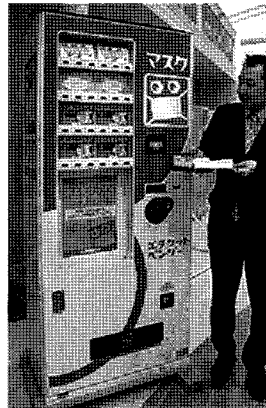
보르네오(보르네오섬)에 있는 말레이시아·사바주의 키나바탄간 강 하류역의 열대 우림은 삼림 벌채나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아브라야시 농원의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로 분단된 보호구에서 고립되어 있는 오랑우탄을 비롯해 야생 동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사바주 야생 생물국, 보르네오 보전 트러스트, 동트러스트 재팬의 3조직은 발에 출몰하거나 사람이 만든 함정으로 상처를 입은 동물의 치료나 일시 피난 때문에 「야생 생물 구출 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발족했다. 한층 더 보호구와 보호구를 연결하는 「초록의 회랑」만들기 대치를 진행시키고 있다. 자동판매기 매상 일부는 이러한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사히산 동물원의 반도우 전 (조집)·원장은 “일본은 보르네오로부터 인스턴트 짜음이나 스낵 과자, 세제 등에 사용하는 팜유나 목재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생 동물이 궁지에 처해 있다. 이번은 일본이 보은하는 차례”라고 자판기 설치의 의의를 호소한다.

타이세이 건설의 고비야시 오사무·사회공헌 추진실장은 “통상 생태계나 자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증으로 목적이 뚜렷한 자판기 설치 계획은 사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기업 참가를 건인시

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에 건설업계에서는 드문 환경 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마스크 자판기 등 신형 인플루엔자 예방 상품 등장



종합병원 등에 설치가 진행되는 마스크 자동판매기(나가오카교시·후지타카 본사)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 대책 전용으로 교토발의 다양한 예방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마스크 자동판매기나 타조의 항체를 활용한 공기 청정기 등 독자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살리고 있다.

자판기 메이커 후지타카(교토부 나가오카교시)는 마스크 3매 들이

의 상자를 최대 147개 탑재할 수 있는 자판기를 제품화했다. 작년 10월 발매 후 칸사이의 병원을 중심으로 약 50대를 판매하고 있다. 사업 통괄 본부에서는 “마스크는 지금 필수 아이템으로, 전국적으로 팔고 싶다”라고 분발 이유를 밝혔다.

후지필립이 상품화한 항체 공기 청정기는 교토부립대의 츠카모토 야스히로 교수가 양산 기술을 개발한 타조의 항체를 이용하고 있다. 필터에 분무하면 바이러스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좋다. 작년 여름휴가(방학) 새벽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판매가 급증해, 마스크 전용 등에도 용도가 퍼지고 있다.

글로벌·컨스트럭션, 방법 카메라 부착 자판기를 무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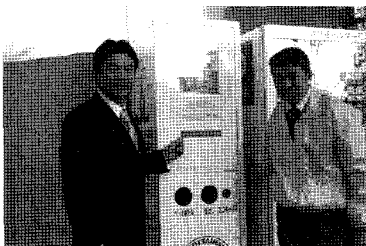
글로벌·컨스트럭션(오사카시 츄오구, 군 분지 사장)는 맨션이나 공장, 슈퍼 등이 방법 카메라를 무료로 설

치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음료회사와 제휴해 동사가 취급하는 방법 카메라를 붙인 자동판매기를 무료 설치한다. 카메라대와 설치 비용은 자판기 설치 조건으로 음료 각사가 부담한다. 맨션 관리 회사나 오피스에 카메라 설치 장소 부근의 방법 효과를 어필, 금년 중에 함께 1000대 설치를 목표로 한다.

별써 대기업을 포함한 음료 5사와 제휴가 끝난 상태이다. 설치하는 카메라는 비밀번호로 보호된 SD카드를 내장해, 약 10일 분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SD카드는 2년후에 교환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와 접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카메라 영상을 외부로부터 도용될 걱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설치 희망 장소에 도착해 음료 회사가 현지의 수요를 조사해 수수료나 카메라 설치 가능 대수 등의 견적을 작성한다.

에코 캡 회수 박스를 우츠노미야시에 기증



우츠노미야시의 「우츠노미야 마을 만들기 공헌 기업」으로 선택된 자판기 설치업 「윈 윈」

이 에코 캡 전용 회수구가 붙은 빈 깡통 회수 박스 1대를 시에 기증했다.

회수 박스는 윈윈이 개발한 제품으로 우츠노미야 성지 공원 내 청명관에 있는 자판기의 옆에 설치했다. 빈 깡통이나 패트병의 회수구 외에 에코 캡 전용 회수구가 붙어 있다.

박스의 정면이나 측면에는 우츠노미야의 브랜드 메세

지 「살면 유쾌하다 우츠노미야」나 「아깝다」의 로고 마크가 새겨져 있다.

동사의 카사이 타카유키 사장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사토우 에이이치 시장은 “우츠노미야의 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공헌받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기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이다. 동사는 지금까지 「우츠노미야 브릿트」 「토치기 SC」 「링크 토치기 블랙스」를 응원하는 자판기를 개발하고 있다.

동사 등이 선택된 「우츠노미야 마을 만들기 공헌 인증 기업」은 시내에 본사나 사업소가 있어 시세를 담부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으로, 현재 57사가 인증을 받고 있다.

카르피스, 신주쿠에서 「안심 레몬」 무료 배포 자판기 설치/ 1만 8000명 대상



카르피스는 지난해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26일 3일간 도쿄·신주쿠 스테이션 스퀘어로 1만 8000명 (각 일

6000개)을 대상으로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무료로 「안심 레몬」이 나오는 후리벤드식의 샘플링 이벤트를 실시했다.

「안심 레몬」은 핫 과즙 음료 넘버원으로서 인정받으며 맛이 소비자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 280ml PET 보틀, 자판기용 300g 보틀캔에 가세해 금년 10월 19일부터 「안심 레몬 칼로리 제로」(350mlPET 보틀)를 발매하고 있다.

특별기획전 VENDEX JAPAN 2010

VENDEX JAPAN 2010



최신 자판기나 자판기 주변기기, 시스템, 내용 상품, 관련 서비스 등 자판기에 관한 최신 제품·서비스를 종합해 소개하는 격년 개최의 전시회입니다. 동시 개최전의 병설에 의해 출전시간의 제휴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외에 소매·유통업등의 로케이션 오픈에 효과적인 어필이 가능합니다.

「VENDEX JAPAN 2010」

기간 : 2010년 3월 9일(화)~12일(금)

장소 : 도쿄 국제전시장 「토쿄 빅사이트」

주최 :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 일본 경제신문사

전시 규모 : 24개사 66부스

내방자수 : 150,000명(리테일 텍 JAPAN, IC CARD WORLD 등 병행 개최 전시회 합계)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일본 경제신문사는 「VENDEX JAPAN 2010」을 리테일 텍 JAPAN의 특별 기획전으로서 2008년에 이어 개최합니다. 2008년 전시회는 사람이나 환경에 배려한 자판기가 많이 전시되어 환경에 좋고, 안전·안심인 마을 조성에 공헌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자판기 본연의 자세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신 자판기 제품·서비스를 소개하는 것 외에 주최자 기획으로서 ‘자판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가지 제안이나 활발한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부스 「자판기로 퍼지는 뉴비즈니스」

이 코너에서는 자판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장소로서 업계 현상 및 역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콜라보레이션, 버스 정류장과 의 융합 등, 가까운 미래 자판기 상을 제안합니다.



출전사 일람

아르나코포레이션, 캐논 IT 솔루션즈, 큐·지, 쿠보타, 그로리, 산덴, 자동판매기신문사, 자동판매 출판사, 자동판매 뉴스사, 다이와록스, 다카미사와사이바네틱스, 다나가와 상점, 치카미미르텍, 동관홍업, 일본 콘락스, 일본 금전기계,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네슬레 일본, 넷트 에스아이 동양, 파나소닉 후드아프라이안스, 피플, 포워드, 후지 전기 소매 시스템즈, 벤딘그자날사 (24사)

카드 결제 파빌리온

크레디트, 기프트카드, 넷 결제 등 「결제」의 최신 솔루션을 테마로 한 첫 크로스 미디어 기획



「IC CARD WORLD」라는 합동 기획으로서 크레디트, 기프트카드, 넷 결제 등 각종 카드 결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 기획 「카드 결제 파빌리온」을 실시합니다. 소매업으로 더욱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 「결제」 최신 솔루션을 전시나 세미나, WEB 등을 제휴시켜 소개하는 크로스 미디어 기획입니다.